

시대를 보는 눈, 다양한 삶의 서사 녹여낸 '신평속도'

내달 1일까지 광주예술공감연구소 '2026 한국현대풍속화전 - Real Time Korea'展

전통 맥 이어 일상서 퍼올린 기록, 날카롭고 따뜻한 세상읽기
곰아재·서재은 등 7명 참여...한·중교류 시저우 초청전시도

조선 후기 풍속화가 당대 서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담아낸 것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활 풍경을 화폭에 기록한 전시가 진행 중이다. 김장하는 날의 풍경부터 봄날 꽃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 두썬꾸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동시대 일상의 장면을 담은 작품들이 관람객을 만난다.

'2026 한국현대풍속화전 - Real Time Korea'가 오는 4월 1일까지 갤러리 총장 22층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광주예술공감연구소(대표 윤민화) 기획으로 마련됐으며 곰아재, 김경민, 문승일, 백선정, 서재은, 양승희, 정성모 등 7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풍속화는 조선 후기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 등에 의해 활발히 전개되며 서민들의 삶과 일상을 기록한 회화 장르로 자리 잡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그 전통이 사실상 단절됐다.



서재은작 '두썬꾸를 기다리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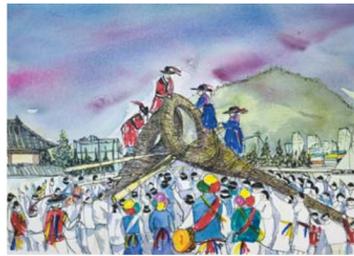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이러한 역사적 단절 이후 현대인의 삶을 동시대의 시각으로 기록하는 '현대 신평속화'의 출발점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윤민화 대표와 참여 작가들은 지난 1월 모임을 갖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 다양한 삶의 장면을 회화로 기록해보자는 취지에 뜻을 모았다.



양승희작 '봄날을 담다'

참여 작가들은 그동안 어반스케이프 작업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과 풍경을 기록하는 드로잉 작업을 이어왔다. 어반스케이프가 도시 공간과 현장성을 중심으로 한 풍경 기록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현대 풍속화는 인물과 관계, 생활의 장면 등 사람 중심의 서사에 무게를 둔다.



문승일작 '정월대보름 고싸움'

시장과 노동 현장, 일상적인 만남, 지역 공동체의 풍경 등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내며, 동시대 사회를 기록하는 회화적 시도도 확장된다.

전시 종료 이후 4월에는 중국 시저우에서 초청 전시도 예정돼 있다. 이는 20여년간 국제교류를 이어온 노정숙 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 회장의 주선으로 마련됐다.

중국 시저우는 농민화로 널리 알려진 지역이다.

노 회장은 지난해 시저우 농민화를 광주에 초청해 전시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전시는 한·중 생활 회화 교류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상호 교류 전시로 한국 현대 풍속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경민작 '김장하는 날'

윤민화 대표는 "과거의 문화예술 전통을 현대에 이어보려는 작은 시작이자,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다양한 삶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전시"라고 밝혔다.

참여 작가 서재은(어반스케이프스 광주 대표)은 "그동안 풍경을 주로 그려왔지만 인물 중심의 현대 풍속화를 시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며 "우리의 작업이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생활의 기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풍속화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 기간 동안 갤러리 총장 21층 전시실에서는 참여 작가들의 어반스케이프 작품도 함께 선보여 도시 풍경 기록과 현대 풍속화 작업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60개의 별, 다시 무수한 별 되어 찬란히 빛나다

'60개의 별이 하나의 하늘을 이루는 무대.'
광주시립오페라단(예술감독 최철)이 오는 14일 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2026년 기획공연 '60 Stars' 무대를 연다. 이번 공연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음악계의 역량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특별 콘서트다.

'60 Stars'는 광주를 대표하며 각자의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60여명의 성악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콘서트다.

지휘자 전진을 중심으로 솔리스트 57명, 피아니스트, 엘렉트론 연주자를 포함해 총 60명의 음악가가 함께한다.

로시니, 푸치니, 베르디, 모차르트 등 오페라 사(史)를 대표하는 명곡들은 물론, 한국 가곡과 합창곡까지 아우르는 무대를 펼쳐낼 예정이다.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부터 오페라 애호가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솔로, 중창, 대규모 합창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구성은 성악이 지닌 풍부한 표현력



지난해 '60 Stars' 공연 모습

과 집단적 에너지를 극대화하며 오페라 공연과는 또 다른 콘서트 형식의 밀도 높은 감동을 선사한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시즌 레퍼토리 개발 ▲관객 저변 확대 ▲오페라단 브랜드 가치 강화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추구한다. 또한, 지역 예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문화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광

주·전남 음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최철 예술감독은 "서로 다른 개성과 색깔을 지닌 성악가들의 목소리가 무대 위에서 어우러지며 '별'이 돼 함께 빛나는 순간을 완성할 것"이라며 "지역 문화예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찾아가는 문화공연 '당신곁에' 참여단체 모집

광주문화재단, 오는 9일부터

광주문화재단이 '찾아가는 문화공연-당신곁에'에 출연할 공연단체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시민 생활권 내에서 펼쳐지는 맞춤형 소규모 야외 공연 사업으로, 지난해 첫 운영 이후 올해 2년 차를 맞았다.



지난해 광산구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문화공연 모습

공연은 ▲동구 문화센터 ▲서구 상무 시민공원 ▲남구 물빛근린공원 ▲북구 양산호수공원 ▲광산구 수완호수공원으로 광주 5개 구별 근린공원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공연은 4-5월(상반기)과 10-11월(하반기)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첫째·셋째 주 토요일은 동구·남구·광산구, 둘째·넷째 주 토요일은 서구·북구에서 공연이 열린다. 공연 장소는 무대 및 전기시설 설치 가능 여부, 접근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소재지를 둔 야외 공연이 가능한 예술단체(팀)이다. 공

연은 50분 내외의 야외 공연으로 구성해야 하며, 공연진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공연 분야는 대중음악, 전통예술, 클래식, 성악, 무용, 댄스, 그 외 거리예술 또는 융 복합포포먼스 등이다.

다만, 야외공연장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공연으로, 짧은 시간 안에 시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이며, 공고문과 신청서는 광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NH농협손해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3억 가입

특이청
상품등록 : 제40-1007119호

나왔다!!! 마시는 씨알-렉스 PREMIUM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씨알-렉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효능·효과는 물지마세요!

주요성분

비수리(야관문), L-아르지닌, 아연, 마카, 복분자, 토사자, 오미자, 사상자, 산수유, 마늘 등

남자한테 좋은데~

표현하기가~

1박스-60,000원

※ 하루 한포면 충분합니다.

각 시·군 취급점 모집

주문 080-374-5046 / 010-3738-8989

© 광주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람약품(주) 062)528-6664